

요약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Solvency II 제도를 자국 실정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 단계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Solvency UK를 발표함. Solvency UK는 자본 규제 완화와 보고 및 공시 의무 조정, 매칭 조정 제도 유연화를 핵심 축으로 보험회사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제도 개혁에 힘입어 영국 보험회사는 장기 및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의 Solvency II 제도를 자국 실정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단계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2024년 Solvency UK를 발표함¹⁾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 Solvency II 지침을 잔존법 형태로 승계하여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재무부와 건전성감독청(PRA)이 협력하여 영국 보험산업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제도를 개정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
 - 제도 시행(2016년) 이후 Solvency II가 보수적이고 복잡하다는 산업계의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① 리스크 마진, ② 매칭 조정 제도, ③ 보고 및 공시 의무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지목됨
 - 재무부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보험회사의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목표로, 2020년 ‘Solvency II Review’를 착수한 뒤, 2022년 공개 협의문을 발표하고, 2024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함
- Solvency UK는 리스크 마진, 내부 모형, 비례성 원칙 등을 다룬 자본 규제 완화와 보고 및 공시 의무 경감, 매칭 조정 제도 유연화를 핵심 축으로 개정돼 보험회사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투자 여력을 확대함²⁾
 - 책임준비금 산출 시,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본의 유지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리스크 마진은 금리 하락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리스크 마진의 산출 근거인 자본비용률(Cost of Capital rate)을 6%에서 4%로 인하함
 - 주로 장기계약을 보유한 생명보험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개편 이후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 마진은 약 65%, 손해보험회사는 약 30% 감소하여 보험회사는 여유 자본을 확보할 수 있음
 - 내부 모형 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테스트 항목을 축소하고, 신규 모형 신청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완전하지 않은 모형도 추가 자본을 부과(Capital add-on)하는 방식으로 승인에 유연성을 더함
 - 이와 더불어 연결 기준 그룹의 요구 자본 산출 시 최대 2년 동안 복수의 내부 모형을 적용하거나 표준 모형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험그룹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부담을 완화함
 - 높은 예측 가능성을 가진 현금흐름 자산을 매칭 조정 대상에 포함해 투자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등급을

1) HM Treasury(2020), “Review of Solvency II: Call for Evidence”

2) PwC(2024), “PRA finalises new Solvency UK framework”; PwC(2024), “PRA finalises Matching Adjustment reforms”

세분화해 위험 민감도를 제고하고, 매칭 조정 적용 혜택에 대해 보험회사가 스스로 감독 당국에 입증하도록 함

- 매칭 조정 심사 기한을 최대 6개월로 설정하고, 보험회사가 매칭 조정 요건을 위반했을 시 위반 정도에 따라 감독 당국이 유연하고 비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재정비함
- 투자 기회를 신속히 포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먼저 매칭 조정 대상 자산을 취득한 뒤 사후적으로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는 '매칭 조정 투자 가속 제도(Matching Adjustment Investment Accelerator)³⁾를 도입함
- 매칭조정 포트폴리오의 10%를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 자산으로 편입(최대 적용 가능 수준)할 경우, 자본 비용(Cost of Capital)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투자 기간 동안 약 17.5bp의 순수익률 개선이 기대됨⁴⁾
- Solvency II 체계의 정량 보고서(Quantitative Reporting Templates; QRTs)와 관련 공시 서식, 영국 자체 양식(National Specific Templates; NSTs)을 다수 삭제하고 통합하였으며 정기감독보고서(Regular Supervisory Report; RSR) 제출 의무를 폐지하였음⁵⁾

〈표 1〉 Solvency UK 정책성명서에 따른 주요 개혁 내용

| 정책성명서 | 시행 시점 | 주요 내용 |
|---------|----------|--|
| PS2/24 | 2024년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모형 승인 절차 완화, 그룹 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내부 모형 적용 유연화 • Solvency UK 적용 기준 상향(연 총수입보험료 500만 유로 이상 → 2,500만 파운드 이상) • 해외 보험회사의 영국 지점 설립 규제 완화(지점 단위의 SCR 및 MCR 산출 의무 폐지) • 경과조치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 완화(Solvency I 참조 의무 폐지, 매칭 조정 대상 사업도 산출 대상에 포함 등) |
| PS3/24 | 2024년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및 공시 체계 간소화(QRTs 및 NSTs 일부 폐지, RSR 폐지 등) |
| PS10/24 | 2024년 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칭 조정 개편(대상 자산 확대, 신용위험 반영 정교화, 보험회사 확약 제도 도입, 매칭 조정 승인 절차 간소화 등) |

자료: PwC(2024)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함

○ Solvency UK 개혁 이후 영국 보험회사는 생산적 금융⁶⁾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매칭 조정 제도 활용을 통해 장기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 제도 개혁 당시 연금보험 사업자는 향후 10년간 1,000억 파운드를 생산적 금융에 투자하겠다 약속했으며, 이에 발맞춰 2024년 한 해 동안 보험회사는 부동산, 편의시설, 교통인프라 등에 약 109억 파운드를 투자함⁷⁾
 - 보험회사는 적절한 규모의 투자 적격성을 갖춘 영국 내 프로젝트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하여 영국 보험협회는 재무부의 국부펀드와 협력해 해당 프로젝트 공급을 확대할 예정임
- 한편 2024년 영국 생명보험회사의 매칭 조정 포트폴리오는 신규 연금 계약 인수 확대로 증가하였으나, 무위험금리 상승,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로 혜택의 규모는 전년 대비 0.5% 증가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었음⁸⁾

3) MAIA는 기존에 매칭 조정 권한을 보유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보험회사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MAIA 운영정책과 자산이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의 대응 절차를 포함한 비상계획을 갖추어야 하고 매년 최소 1회 MAIA 운영보고서를 PRA에 제출해야 함

4) KPMG(2023), "Report on potential economic impacts of changes to the insurance regulatory framework in response to HM Treasury's review of Solvency II and PRA Solvency II Reform Consultation Papers"

5) QRT는 지급여력비율, 자산 부채 구성 등 주요 재무 지표를 표준 양식으로 보고하는 정량 서식이며, NST는 영국 PRA가 별도로 요구하는 서식으로, 파생상품 익스포저나 내부모형 사용 현황 등을 포함하고, RSR은 재무상태, 리스크관리체계 등 전반적 경영 현황을 기술하는 감독당국 제출용 정성 보고서임

6) 영국의 생산적 금융은 기업이 사회 인프라, 연구개발 등 경제의 생산 능력을 높이는 생산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하며, 특히 장기적이고 유동성이 낮은 투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함

7) ABI(2025), "From pledge to progress: £10.9 billion invested in UK productive assets"

8) InsuranceERM(2025), "Solvency UK matching adjustment: 2024 review"